임권택 감독 100번째 영화 '천년학'

"한폭의 한국화 보는 느낌 들었으면… 요즘 영화는 나이로 찍는구나 생각"

임권택(71·사진)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이 공개됐다. 투자가 잠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영화를 완성한 임감독을 인터뷰했다.

-격정도 없다. 드라마도 강하지 않다.

▲유봉의 묘에서 8년 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격정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다. 보는 이들이 미루어 생각할 수 있도록, 보는 이들이 자꾸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다.

-동호와 송화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무얼까.

▲가정을 이루며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닌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만남과 이별을 통해 도무지 산다는 게, 만나서 기쁨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

-대사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소리를 두 사람의 삶 자체에 깊숙이 끌어당겼다. 비애스럽고 비탄스러운 삶의 여정을 그려가면서 '아름다운 비애'를 영화에 드러내고 싶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풍경이 굉장히 단순화돼 표현된 느낌이다. .

▲영화를 다 보고나면 마치 '한 폭의 한국화'를 봤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했다. '천년학'에 등장하는 풍경은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은 지나쳐 버릴 정도로 흔하디 흔해 별로 관심을 끌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인데 적시적소에 들어오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커트에 공을 안들인 것은 없다. '천년학'의 이야기는 강력한 드라마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일상같은 이야기를 토막토막 들려주는데 어떻게 감동이나 감흥을 극대화시킬 것인지가 큰 과제였다.

-젊은 관객들이 감독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얼핏 지나쳐 보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다 못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영화는 나이로 찍는 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든 만큼 세상을 보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를 새겨서 보면 '천년학'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작단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혹시 또 상처를 받을 지도 모를 일이고.

▲사는 게 다 그렇다. 상처받고 견뎌내고 또 상처받고…. /연합뉴스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원작 … 한때 제작 중단도

장성 출신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인 '천년학'은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의 '남도사람' 연작 중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93년 이 연작 가운데 '서편제'가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편제'의 뒷이야기 격에 해당하는 '천년학'은 '서편제'와 유사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가 송화 역을 다시 맡았으며 조재현이 동호역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류승룡, 오승은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임감독의 영원한 파트너인 정일성 감독이 촬영을 맡아 장흥, 광양, 진도 등 전라도와 제주 등지를 돌며 아름다운 풍광을 잡아냈다. 또 음악감독을 맡은 양방언은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와 OST 녹음을 진행,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천년학'의 완성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초 '서편제' 등을 제작하며 오랜기간 호흡을 맞춰온 태흥영화사가 제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투자를 취소하면서 제작이 중단돼 100번째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 거장조차 마음껏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신생 제작사 키노투가 제작을 맡으면서 어렵사리 촬영이 재개됐고 개봉까지 왔지만 1주일만에 영화 성공의 승패가 결정되는 요즘 시스템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천년학'이 얼마나 선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영화

'우아한 세계'

송강호의 선택…40대 조폭가장의 비애

주인공역을 맡은 송강호가 감독의 이름을 믿고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선택한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연애의 목적'의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조직 폭력배라는 다소 거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역시 남편이자 아빠일 수밖에 없는 40대 중년 남자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강인구는 가족들로부터 늘상 조폭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다 조직의 2인자 노상무와의 관계도 껄끄러워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막내딸은 조폭 아빠가 싫다며 폭언을 퍼붓고 조직내 문제로 인구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만 그런 그에게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다.

연기 생화 18년만에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한 박지영, '올드보이' 등에서 맛깔스런 조연 연기를 보여준 오달수가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으로 유명한 칸노 요코가 영화음악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우아한 세계 송강호 주연의 생활 느와르. '연애의 목적'을 만든 한재림 감독 작품이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미
마하 2.6 풀 스피드 '택시'로 '스피드 액션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은 제라르 피레스 감독 작품으로 비행사들이 주인공이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CGV(상무)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 코치 딸의 연애 코치로 나선 싱글맘 스토리. 다이안 키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미
타인의 삶 통일전 동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15세 관람가.	하미
뷰티풀 선데이 과거의 죄를 숨기고 사는 두 남자 이야기로 박용우·남궁민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제일, 하미
이장과 군수 '선생 김봉두'의 차승원과 장규성 감독, 유해진이 뭉쳐 만든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미
넘버 23 소설 '넘버 23'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짐캐리 주연의 스릴러물.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작가 파트리트 쥐스킨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300 프랭크 밀러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전쟁 서사극.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하미,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엔터
블랙북 '원초적 본능'의 폴 버호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비극적 전쟁 이야기. 19세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수 지진희가 주연을 맡은 액션물. 18세 관람가.	엔터, 하미, 스타박스
브레이크 업(이별후애) 제니퍼 애니스톤 주연의 멜로물. 15세 관람가.	CGV(상무) 엔터
빼꼼의 머그잔 여행 백곰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CGV(첨단·상무)

광주 CBS 일본선교여행
후쿠오카-하우스텐보스-시마바라-아소-벳부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 일 자 : ■5차:2007년 4월 23일(월)~26일(목) (3박4일)
●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 참가금액 : 1차 : 55만원 2차~5차 : 57만원 (성수기 요금)
● 예 약 금 : 100,000원 (예약취소시 환불불가)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38-127-005137 (예금주:기독교 광주방송)
● 접수문의 : 062)376-8500~1
● 주 최 : 광주CBS

광주CBS의 일본선교여행은
○ "복음의 씨앗"을 일본에 파종하기 위한 선교사역입니다.
○ 저렴한 가격에 품격높은 최고의 여행상품입니다.
-특급호텔 3박 -최상의 여행코스
-3시간 쾌속선 운행 -특별 간증 집회

이번 여행기간 너무나 행복했다.
처음엔 무척 망설였는데
정말 잘왔다는 생각이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어

여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택전화
- 주민등록증 원본 - 목도장
- 칼라사진(여권용) 2매
- 여권수속비 ₩55,000
- 본적기재

일본VISA
- 비자 면제

포 함 내 역
- 쾌속선 왕복 - 호텔 숙박비
- 식사 - 대형버스
- 입장료
- 하우스텐보스 1일 프리패스